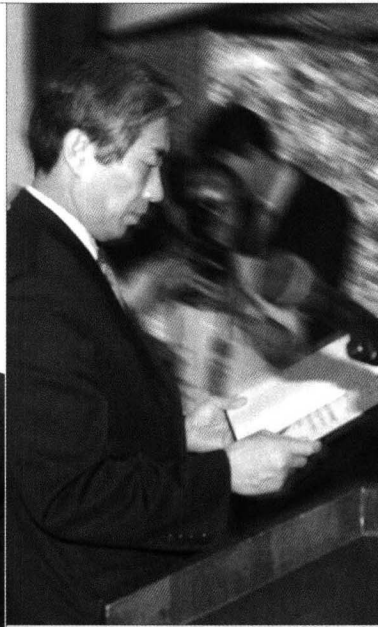


제25회 한국어린이도서상 및

제22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시상식



제22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부문 본상
《김수병의 첨단과학 오디세이》(해나무)의 김수병 씨



01

과학도서와 어린이도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가 아동도서와 과학기술도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제25회 한국어린이도서상과 제22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시상식이 지난 7월 20일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정일 회장은 “한국어린이도서상은 지난 25년 동안 한국 어린이책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역시 열악한 환경의 과학기술도서를 발굴 소개함으로써 과학책 독자의 지면을 넓혀왔다”며 “앞으로도 출판인들이 보다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출판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어린이도서상에선 저작부문 본상에 김용택의 《꿈꾸는 섬진강》, 특별상에 김진경의 《거울전쟁》(문학동네어린이)과 윤동재의 《동시로 읽는 옛이야기》(계림북스쿨)가 각각 선정됐고,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본상에 한성옥의 《나의 사직동》(보림), 특별상에 정보영의 《작은도둑》(효리원)과 소윤경의 《신통방통 귀와 코》(아이세움)가 뽑혔다. 기획 편집부문에선 《문테소리 옛 이야기》를 기획한 한국문

테소리의 김석규 회장이 본상을, 《똥떡》을 낸 언어세상의 송지현 씨와 《어린이 판소리 그림책 심청가》를 낸 초방책방의 신경숙 대표가 특별상을 받았다.

김용택의 《꿈꾸는 섬진강》은 창작동화를 제치고 섬진강의 자연, 생태적 이야기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많은 사진자료와 함께 재미있고 쉽게 저술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나의 사직동》은 기획력과 디자인, 표현기법이나 구성력에서의 완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테소리 옛 이야기》는 전래동화를 현대 어린이에게 맞춰 재구성하였으며 특히 어린이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교육효과를 높여려 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도서상은 저술부문 본상에 김수병의 《김수병의 첨단과학 오디세이》(해나무), 번역부문 본상에 이강웅·김맹기 번역의 《길들여지지 않는 날씨》, 출판부문 본상에 《복식디자인이론》을 낸 류제동 교문사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지호출판사의 장인용 대표는 《자연의 빈자리》로 특별상을 받았다.



제25회 한국어린이도서상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본상
《나의 사직동》(보림)의 한성욱 씨



02



interview 01 김수병 씨

“제 저술방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997년부터 과학분야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외고를 관리하려고 했죠. 하지만 막상 청탁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한겨레21>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수병(38) 씨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한다’는 심정으로 과학을 주제로 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당연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수밖에 없었던 그로서는 취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

“수상소식을 듣고 그동안 했던 작업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역기자인 김수병 씨는 과학기사를 쓰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데스크가 원했던 쉬운 글, 생활 속의 이야기도는 곧 실현될 첨단과학과 그로인한 빛과 그림자를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김씨는 《마음의 발견》까지 두 권의 과학책을 쓴 과학전문저술가다. 다음 책은 로봇이나 나노기술 등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제품의 실제적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한다.

interview 02 한성욱 씨

“소수자에게 위료가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성욱(43) 씨에게 이번 수상은 남다르다. 그동안 비주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온 데다 2002년 《수염할아버지》(보림)로 한국어린이도서상 일러스트레이션 부문에서 수상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사직동》은 논픽션이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표현 방법을 찾다 보니 사진을 활용하게 된 거죠. 물론 주위에서 어린이가 볼 건데 하는 우려가 많았지만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외롭게 지라온 한씨는 대학에 가서야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지 너무 획일화된 문화 탓에 자신과 같은 소수자가 소외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일러스트는 소수자들에게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의 작업도 마찬가지다.

“다음 책은 올 가을에 나올 예정인데 기대해도 좋을 거예요. 사직동과는 180도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른 《시인과 여우》의 두 번째 작품인 《시인과 조약돌》도 올 8월 중에 현지에서 출간할 계획이다.

<한겨레21> 기자로 있는 김수병 씨는 다루기 힘든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소재들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다루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길들여지지 않는 날씨》를 번역한 한국외국어대학 대기화학과 이강웅 교수와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김맹기 교수는 어려운 전문용어를 원문과 병기함으로써 역자의 뜻을 독자에게 바로 전달하는데 힘을 쏟은 점을 인정받았다. 《복식디자인이론》은 복식디자인의 실례적인 지식을 명쾌히 전달하고 있다는 점과 몇 백 컷이 넘는 도판의 미려한 안배로 ‘보는 책’의 장점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한국어린이도서상을 심사한 한국아동문학연구회 엄기원 회장은 “책의 응모 수량에 비해 시상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해마다 격조 높은 좋은 책들이 상을 받지 못해 늘 안타깝게 여긴다”며 “제26회 때부터는 시상의 폭을 좀더 넓혀 주었으면 하는 게 심사위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심사는 과학문화진흥회 이광영 부회장,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이종춘 회장,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대한출판문화협회 박찬익(박이정 대표) 상무이사가 맡았고, 한국어린이도서상은 아동문학가 엄기원 씨, 아동문학평론가 김세희 씨, 일러스트레이터 강우현 씨, 대한출판문화협회 박이정 상무이사가 각기 심사를 맡았다.

취재 | 신동섭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